



소장하고 있는 문학자료의 일례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



요세가키



이시이 하쿠테이 그림



나카자와 시게루 그림



사카도성 교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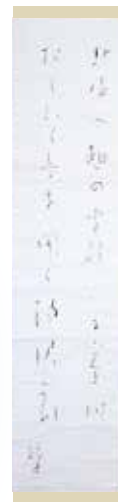
사카도성 교창



구마가이 겐타로 작 [미쿠니 곤겐샤 신사의 문]
유자와마치 지정문화재



야사노 히로시 작(왼쪽)
야사노 아키코 작(오른쪽)



기타하라 하쿠슈 작

입장시간 / 9:00~17:00(비정기 휴무)

입 장 료 / 대인 ... 500엔

(숙박하시는 분, 초등학교생 이하는 무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대표작 "설국" 집필의 숙소

雪國の宿 高半

설국의 숙소 "다카한"

설국의 숙소 "다카한"

高半

다카한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설국”의 첫머리 문장. 문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작 “설국”은 저희 여관 ‘가스미노마’에서 1934년 늦가을부터 1937년에 걸쳐 집필되었으며, 당시의 조용한 ‘설국의 숙소’ 다카한에서 시마무라와 게이샤 고마코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시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1937년에 하나야기 쇼타로가 1개월 신바시 연무장에서 열연하였습니다. 하나야기의 색종이도 남아 있습니다.

그 후 1956년 가을부터 1957년 늦봄까지 다카한을 무대로 “설국”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연배우로는 이케베 료(시마무라 역), 기시 게이코(고마코 역), 야치구사가오루(요코 역)가 등장했으며 도요다 시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찬을 받았고 명작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영화는 “설국”이 집필되었던 우리 여관의 ‘가스미노마’를 주체로 당시 그대로를 재현하여 촬영되었고, 지금도 ‘가스미노마’는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 머무시는 손님 여러분, “설국”의 시마무라와 게이샤 고마코의 순수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행의 하룻밤을 보내 주십시오.

또한 요사노 뎃칸·아키코 부부, 기타하라 하쿠슈 부부가 우리 여관을 방문했을 때 ‘설국의 방 가스미노마’에서 시를 만들었으며, 그 글은 저희들의 가보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이 하쿠테이 화백이 ‘설국의 방 가스미노마’에서 그린 스키장 사생화는 명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高半

다카한의 역사

저희 여관은 니가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입니다. 약 900여년 전 저희 가문의 시조인 에치고 시바타의 무사 다카하시 한로쿠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이곳 지역을 지나 간토 지방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병에 걸려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약으로 하려고 살무사나 송장개구리 등을 잡으러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저절로 솟아오르고 있는 이 온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문서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900여년 전 호리카와 천황 치하의 1089년, 미나모토노 요리쓰나의 가신 사부로베에 노부치가 가 에치고 이야히코 신사에 헌납한 지도에 유자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겐지 전국의 시대에 닛타 요시사다 일족은 시로이시고로서 본거지로 삼았고, 우에스기 겐신 및 가게카쓰는 우에다슈라고 부르며 이곳을 간토 호조 우지야스와의 싸움에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사카도성 난간의 천동신 조각은 우리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약 830년 전의 안겐 원년, 다카쿠라 천황 치세에 산사태 피해를 입었지만 온천물은 변함없이 솟아 올랐으며, 약 300년 전의 겐로쿠 연간에 거대한 눈사태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천 용출지점에서 200미터 떨어진 이 언덕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도시대(1603-1868)에는 참근교대의 숙소로 크게 번창했다고 하며, 이 사실은 스즈키 보쿠시가 집필한 “호쿠에쓰썬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쿠니 고개 정상 곤겐사 신사의 구마가이 겐타로(간세이 분류 시대의 명장)가 만든 조각도 저희 건물에 있습니다. 옛부터 야쿠시노유(약효가 있는 온천)로 불려왔으며, 피부를 아름답게 해 준다고 하여 다마고노유(계란피부로 만드는 온천)로도 불렸고, 주후노유(중풍에 좋은 온천)로도 불리면서 널리 알려졌지만, 메이지시대(1868-1912) 이후 조금씩 인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에쓰선 개통과 함께 산간 지역의 숙소로 다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1931년 9월, 동양 제일의(세계에서 아홉 번째) 시미즈 터널이 개통되면서 조에쓰선이 완성된 후에는 급격하게 다시 일어나 일약 유자와온천은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이곳은 스키장으로도 유명해졌고, 그로 인해 저명 인사들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고 지역의 흥망성쇠는 있었지만, 900년 동안 변함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우리 여관의 천연온천은 참으로 드문 온천이며, 그 온천 향기도 옛날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관도 대대로 이 온천을 지키면서, 다카하시 한자에몬을 대대로 슬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越後湯沢温泉 湯

에치고유자와 온천 다마고노유

高半

www.takahan.co.jp

(우편번호)949-6101

니가타현 미나미우오누마군 유자와마치 유모토

TEL (025)784-3333(대표) FAX (025)784-4047